

경제활동과 재테크 관련 국민 의식 분석

경제활동 나이와 위협 요인

- 경제활동 희망나이, 60대가 가장 많아
- 희망과 무관한 현실적 경제활동 나이 전망, 별다른 차이 없어
- 경제활동 위협 요인, '기술발전 따른 일자리 축소' 가장 경계

은퇴(또는 노후) 준비에 대한 의식

-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, '준비하고 있다' 56%
- '준비하고 있다'는 응답층, '저축'과 '국민연금'이 주된 준비 방법
-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 필요자금, '2억~5억원'
- 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, '불안하다' 59%

재테크 관련 국민 의식

- 평소 재테크에 '관심 있다', 67%
-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, '주식'과 '금융상품'이 주력
- 여유자금 보유시 투자대상, 금액 많을수록 '부동산' 선호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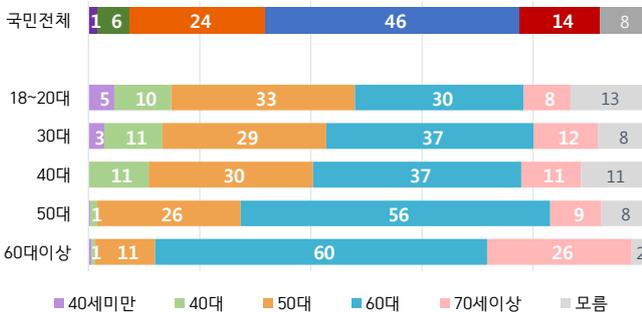
▣ 경제활동 나이와 위협 요인

※ 경제활동 희망나이, 60대가 가장 많아

- ▶ “선생님께서서는 평소 몇 살까지 경제적 활동, 즉 일을 할 생각이세요?”라는 질문에 국민 중 46%가 60대라고 응답함
 - 다음은 50대(24%), 70세 이상(14%), 40대(6%), 40세 미만(1%) 순으로 응답함
- ▶ 연령이 높을수록 60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, 18~20대의 경우 50대라는 응답이 근소하게 더 높게 나타남
 - 18~20대의 경제활동 희망나이는 50대가 33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60대(30%), 40대(10%) 등으로 조사됨
 - 60대 이상 연령층은 현 나이로 인해 70세 이상까지 일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(26%)
- ▶ 월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60대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됨
 -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의 경우 ‘모름’이라는 응답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60대라는 응답이 낮았음
- ▶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이에 비해 학생 계층은 50대까지 일하겠다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
- ▶ 한편, 주관적 이념성향별이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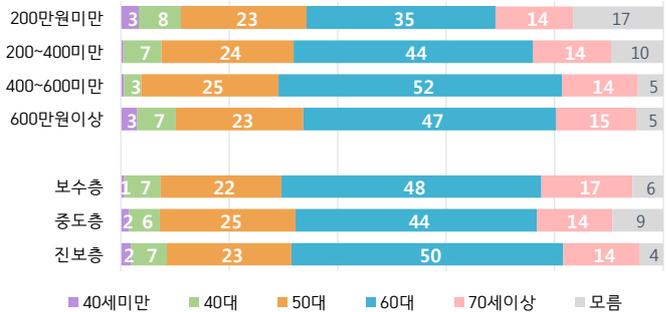
경제활동 희망 나이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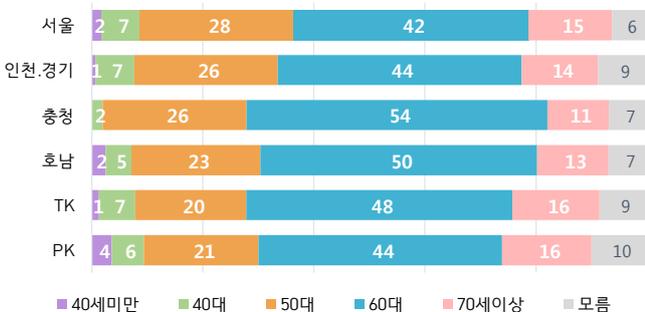
경제활동 희망 나이 : 소득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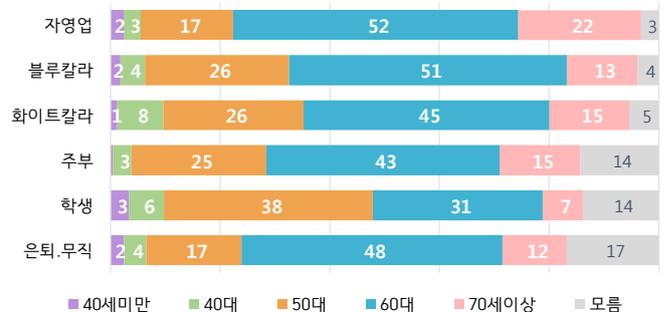
경제활동 희망 나이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경제활동 희망 나이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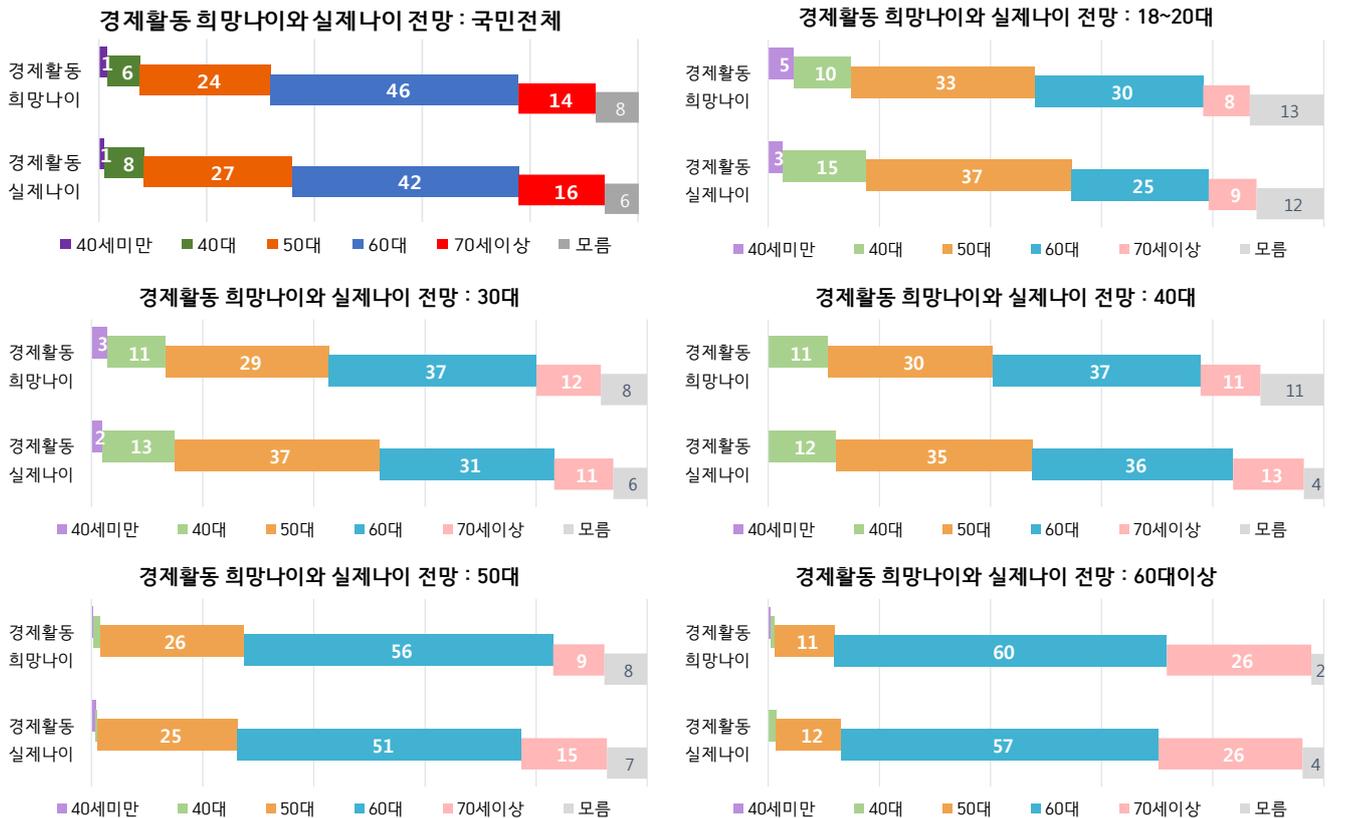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️ 이른 바 ‘인생 100세 시대’ 를 맞으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 희망 나이가 60대로 상향된 것으로 보임 : ‘50대 정년 퇴임’은 구시대 유물이 되었고,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4%로 높게 나타나(60대와 70세 이상을 합하면 60%에 달함) 향후 경제활동 희망나이는 점점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
※ 희망과 무관한 현실적 경제활동 나이 전망, 별다른 차이 없어

- ▶ “선생님의 생각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선생님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”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경제활동 희망나리와 비슷하게 응답함
 - 60대라는 응답이 42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50대(27%), 70세 이상(16%), 40대(8%), 40세 미만(1%) 순으로 응답함
- ▶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경제활동 희망나리와 실제나이가 거의 비슷하고, 이를 축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실제 경제활동 나이가 줄어들고 연령이 높을수록 실제 경제활동 나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
 - 18~20대와 30대는 실제로 일하는 나이에서 50대라는 비중이 높아지고, 40대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음
 - 50대는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아졌고, 60대 이상 연령층은 큰 변화가 없음
- ▶ 소득별, 주관적 이념성향별, 지역별, 직업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

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.조사,단위:%)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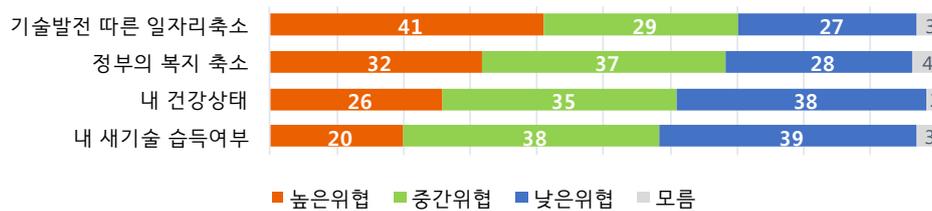
- ☑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희망 경제활동 나이와, 실제 경제활동 나이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 - :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'100세 시대'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임
- ☑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노년층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, 향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
 - :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.8%로 OECD 국가 중 1위임 (2017년 기준)
 - : 이는 취약한 소득원, 노후준비 부족, 공적연금 미흡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임

※ 경제활동 위협 요인, '기술발전 따른 일자리 축소' 가장 경계

- ▶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위협 요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은 '인공지능, 로봇 등 기술발전 따른 일자리 축소'를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음
- '인공지능, 로봇 등 기술발전 따른 일자리 축소'에 대해서는 '높은 위협'이라는 응답이 41%로 높게 나타남
- ▶ 다음으로 '높은 위협'이라는 응답이 높은 요인은 '정부의 복지 축소'(32%), '내 건강 상태'(26%), '내 새기술 습득 여부'(20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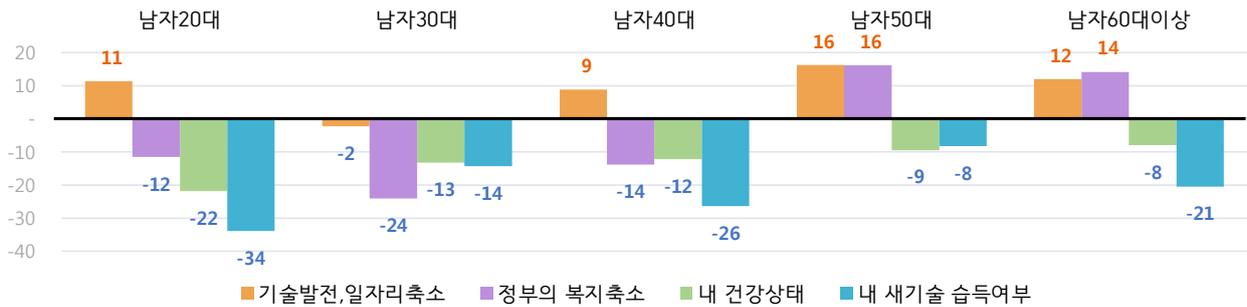
경제활동 위협요인별 위협정도 평가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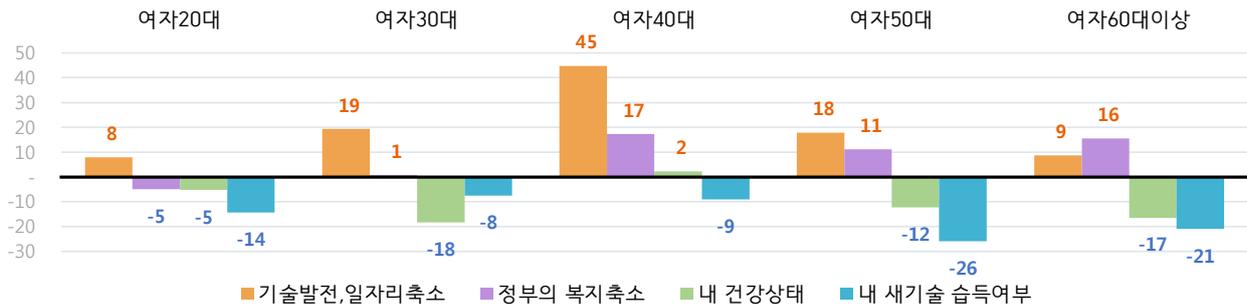


- ▶ 성/연령별로 위협요인별 편차를 살펴보면 30대 남자를 제외한 모든 성/연령층에서 '기술발전, 일자리 축소'를 '높은 위협'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- 위협요인별 편차는 성/연령별 응답 중 '높은 위협' 응답 비중에서 '낮은 위협' 응답 비중을 뺀 수치임
- 30대 남자는 모든 위협요인에 대해 '낮은 위협'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- ▶ '정부의 복지 축소'에 대해 40대 여자와 50대 남녀, 60대 이상 남녀가 '높은 위협'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
-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 축소 우려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,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

경제활동 위협요인별 편차(높은위협-낮은위협) : 남자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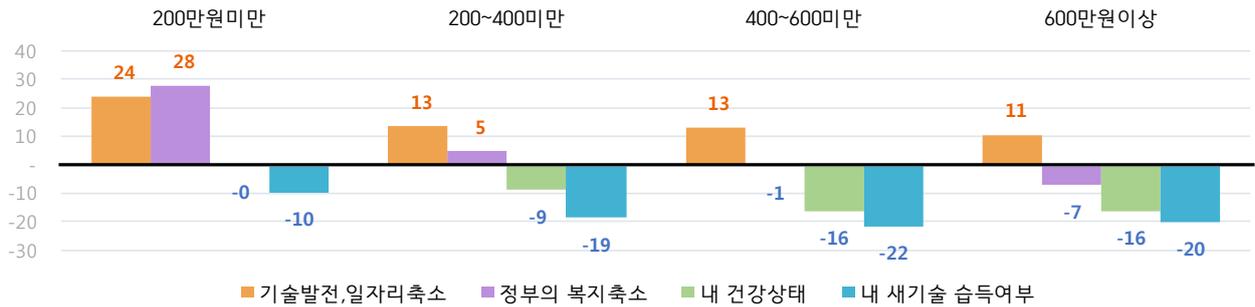


경제활동 위협요인별 편차(높은위협-낮은위협) : 여자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p)



- ▶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'기술발전, 일자리 축소'를 '높은 위협'으로 인식하고 있음
- ▶ '정부의 복지 축소'에 대해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이 '높은 위협'이라고 인식하는 데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'낮은 위협'으로 생각하고 있음
- 400~600만원 미만 소득 계층은 편차가 -1%p에 불과해 '정부의 복지 축소'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경제활동 위협요인별 편차(높은위협-낮은위협): 소득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p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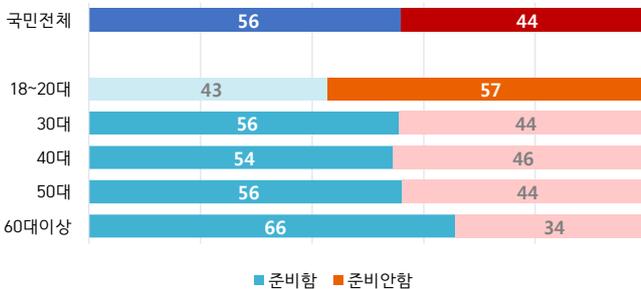
- ☑ '인공지능, 로봇 등 기술발전 따른 일자리 축소'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흐름으로 이미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축소를 낳고 있음
 - :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·강화될 것이 확실시됨
- ☑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신기술 습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직업에의 취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, 우리 국민들은 이점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임
 - : '내 새 기술 습득 여부'는 모든 성/연령대에 걸쳐 '낮은 위협'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 - : 5060세대 등 나이가 많은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'낮은 위협'이라는 인식이 강함
- ☑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과 별개로 OECD는 '새 기술 습득'의 중요성을 지적함
 - : OECD는 2020년 8월 11일 발표한 「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0」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중장년·저숙련 노동자의 역량 강화, 재교육·직업훈련 등에 정부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함
 - :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, 직업훈련의 질과 금전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함
 - : 또한,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크고,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
- ☑ 국민 인식과 OECD 등 국제기구의 판단의 차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고,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다소 부차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
- ☑ 한편, '정부의 복지 축소'에 대해 '높은 위협'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'급속한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파탄'이라는 주장에 노출된 결과로 분석됨
 - : 정부의 복지 축소는 가능성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가재정 파탄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임
- ☑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민적 우려는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
 - : 복지 확대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미래통합당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'기본소득'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임

㉨ 은퇴(또는 노후) 준비에 대한 의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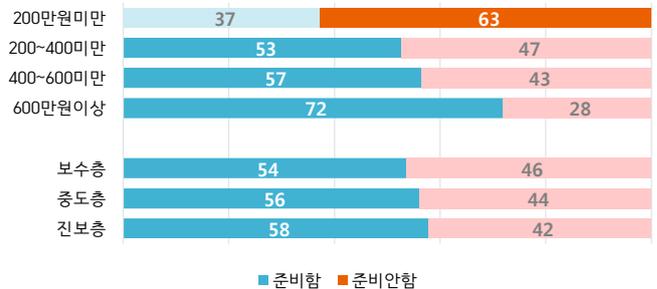
※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, '준비하고 있다' 56%

- ▶ “선생님께서서는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세요?”라는 질문에 ‘준비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56%이고, ‘준비 안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44%로 조사됨
-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3.8%라는 현실을 비춰볼 때 ‘준비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임
- ▶ 연령대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18~20대 ‘준비 안함’이라는 응답이 57%로 높은 것은 이해되지만, 은퇴 또는 노후를 앞둔 4060세대의 ‘준비 안함’ 응답이 높은 점은 이례적임
- 50대는 ‘준비함’ 56% vs ‘준비 안함’ 44%이고, 60대는 ‘준비함’ 66% vs ‘준비 안함’ 34%임
- ▶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‘준비 안함’ 비중이 높음
-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은 ‘준비 안함’ 비중이 63%인데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28%에 그침
- ▶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주부계층은 상대적으로 ‘준비함’ 비중이 높지만, 학생과 은퇴.무직 계층은 ‘준비 안함’ 비중이 높음
- ▶ 한편, 주관적 이념성향이나 지역별 응답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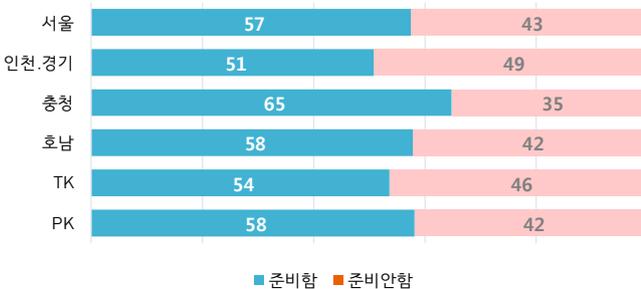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생활 준비 여부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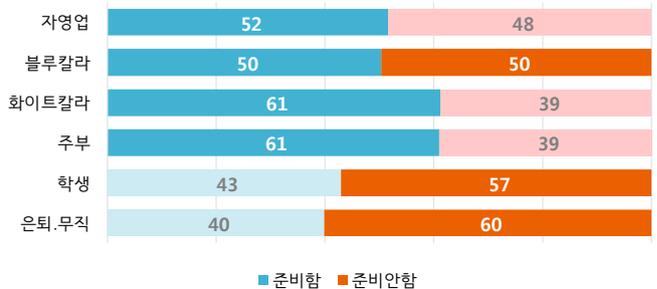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생활 준비 여부 : 소득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은퇴 후 생활 준비 여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은퇴 후 생활 준비 여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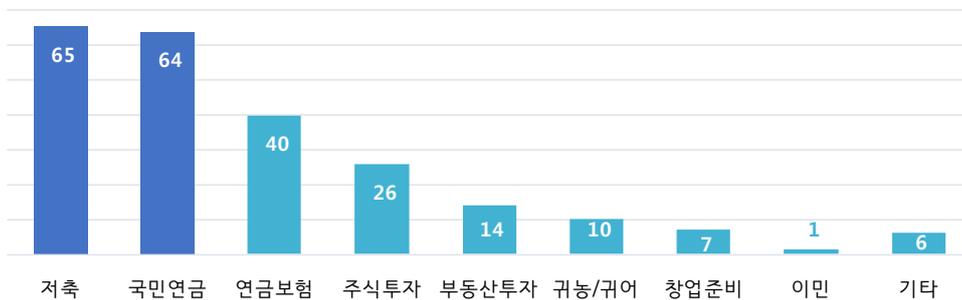
- ☑ 대부분의 국민은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,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은 56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
- ☑ 이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'노후준비 능력이 없다'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음(통계청 사회조사 결과)

※ '준비하고 있다'는 응답층, '저축'과 '국민연금'이 주된 준비 방법

- ▶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 준비 방법에 대해 '준비하고 있다'는 응답층에게 그 방법을 질문한 결과 '저축'이 65%로 가장 많았고, 근소한 차이로 '국민연금'이 64% 높게 나타남
- 현재 하고있는 방법 모두를 선택해 달라고 한 복수응답 결과임
- ▶ 다음으로 '연금보험' 40%, '주식투자' 26%, '부동산투자' 14%, '귀농/귀어준비' 10%, '창업준비' 7%, '이민' 1% 등으로 조사됨

은퇴 후 생활 준비 방법 ('준비하고 있다' 응답자만, 복수응답)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- ▶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'저축'과 '국민연금'이 주된 미래 준비 방법이 되고 있음
- ▶ 한편, 주식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 준비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있음
- 18~20대의 주식투자 비율이 31%로 높은 수준임

연령별 은퇴 이후 준비 방법 ('준비하고 있다' 응답자만, 복수응답)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.조사,단위:%)

	저축	국민연금	연금보험	주식투자	부동산투자	귀농/귀어	창업준비
18~20대	74	48	33	31	13	2	10
30대	73	60	43	29	18	8	11
40대	65	68	44	27	17	10	6
50대	59	69	41	23	8	17	7
60대 이상	61	68	38	22	14	13	3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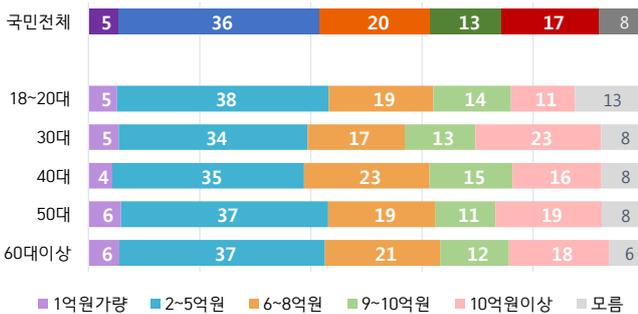
- ☑ 우리 국민들은 일을 그만 둔 후, 즉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'저축'과 '국민연금'임
- ☑ 두 가지 모두 미래를 위해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,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준비는 지금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되고 있음
- : 저축의 경우 저금리 시대로 인해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, 국민연금 역시 당장의 수익과는 상관없음

※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 필요 자금, '2억~5억원'

- ▶ “선생님께서 일을 그만 둔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'2억~5억원'이라는 응답이 36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- 다음은 '6억~8억원' 20%, '10억원 이상' 17%, '9억~10억원' 13%, '1억원 가량' 5% 순으로 조사됨
- ▶ 연령별로는 대부분 비슷한 응답을 보인 가운데 30대의 경우 '10억원 이상'이라는 응답이 23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간소득 계층(200~400만원 미만과 400~600만원 미만)은 '2억~5억원'이라는 응답이 각각 40% 대로 높게 나타남
 - 이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'10억원 이상'이라는 응답이 27%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재 소득에 따라 은퇴 이후 여유자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
 -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의 경우 '1억원 가량'이라는 응답이 10%로 상대적으로 높았고, '모르겠다'는 응답도 18%로 높았음
- ▶ 지역별로는 수도권외의 경우(서울과 인천.경기) '10억원 이상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
 -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, 소비수준도 높기 때문으로 보임
- ▶ 이념별로는 보수층이,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'10억원 이상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
 - '10억원 이상'이라는 응답은 보수층은 20%, 화이트칼라 계층은 22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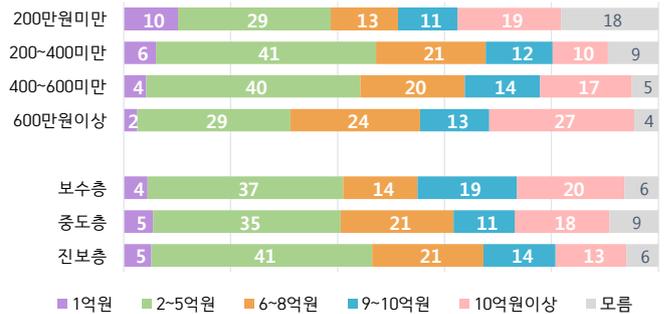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여유생활 필요 자금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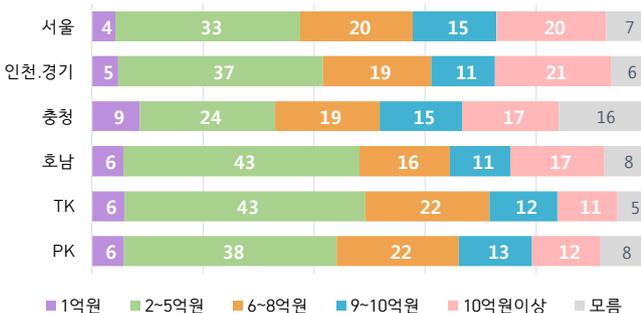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여유생활 필요 자금 : 소득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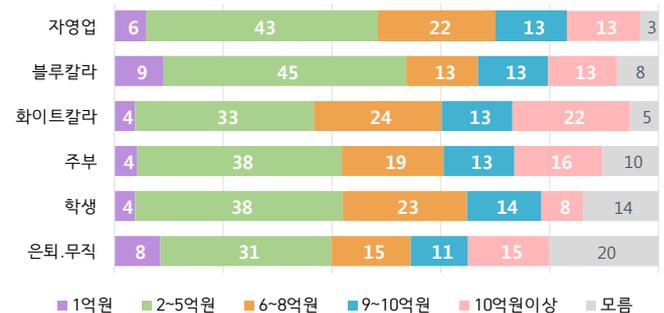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여유생활 필요 자금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은퇴 후 여유생활 필요 자금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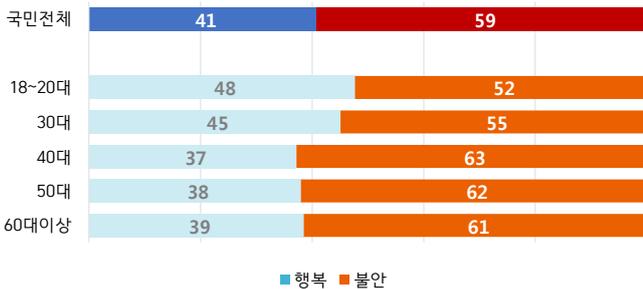


※ 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, '불안하다' 59%

- ▶ 우리 국민들은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을 상상할 때 행복하기 보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
 - “선생님께서서는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을 상상할 때 행복하세요, 불안하세요?”라는 질문에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59%로 ‘행복하다’는 응답(41%)보다 높게 나타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 - 그러나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역시 ‘행복하다’ 54%, ‘불안하다’ 46%로 절대적으로 ‘행복하다’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
 - 학생 계층 역시 ‘행복하다’ 51%, ‘불안하다’ 49%로 거의 비슷함
- ▶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4060세대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 △주부와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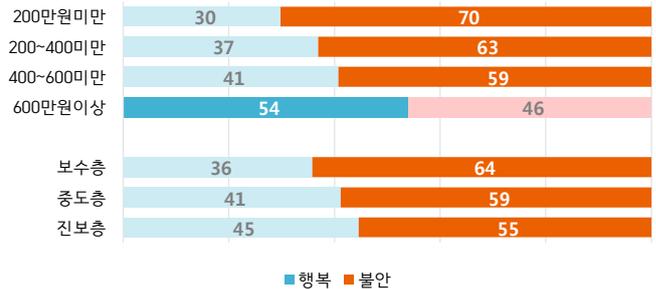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 : 국민전체, 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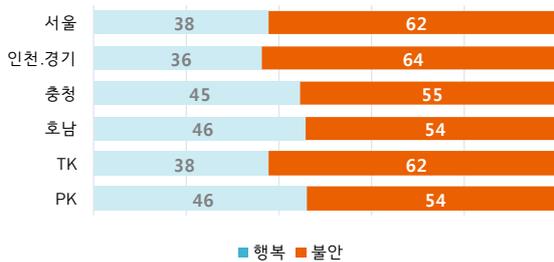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 : 소득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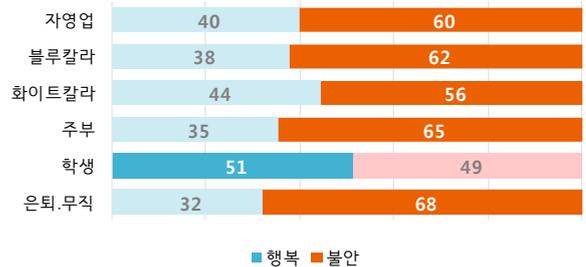
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은퇴 후 생활 상상시 느낌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일을 그만 둔 후, 즉 은퇴 후의 미래에 대해 '불안감'을 갖고 있으며, 지금 현재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- ☑ 앞서 은퇴 후 여유 생활 필요자금과 연결지를 때 '2억~5억원'은 필요하지만 이를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: 또한 은퇴 후 생활 준비 여부 응답에서 '준비 안하고 있다'는 응답이 44%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준비할 여력과 의지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읽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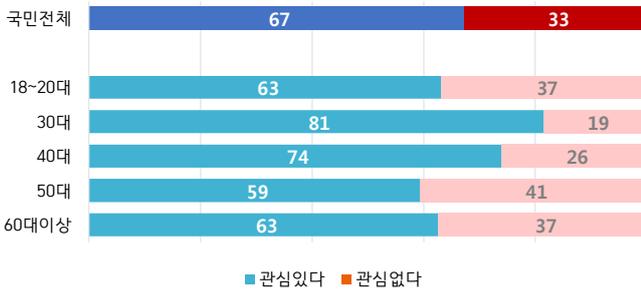
재테크 관련 국민 의식

※ 평소 재테크에 '관심 있다', 67%

- ▶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▶ “선생님은 평소 재테크(투자)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세요?”라는 질문에 ‘관심 있다’는 응답이 67%로 ‘관심 없다’는 응답(33%)보다 높게 나타남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재테크에 ‘관심 있다’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국민들 사이에서 재테크는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임
 - ‘관심 없다’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과 은퇴.무직자 계층에 그침
 - 그러나 이 역시 격차가 크지 않아 이들 계층에서도 재테크는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판단됨
- ▶ 재테크에 ‘관심있다’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30대 △600만원이상 고소득층 △자영업, 화이트칼라, 학생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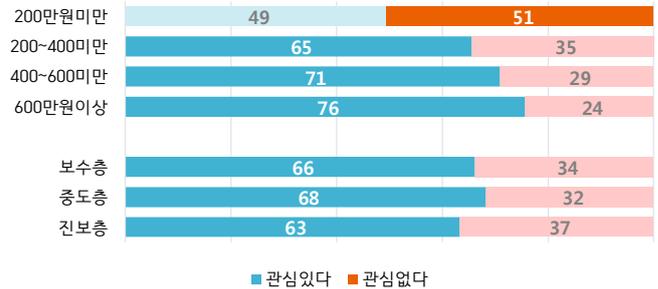
재테크 관심 여부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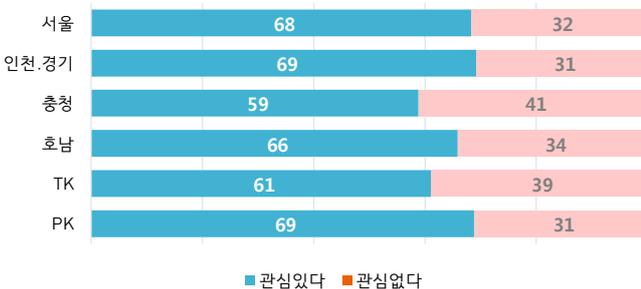
재테크 관심 여부 : 소득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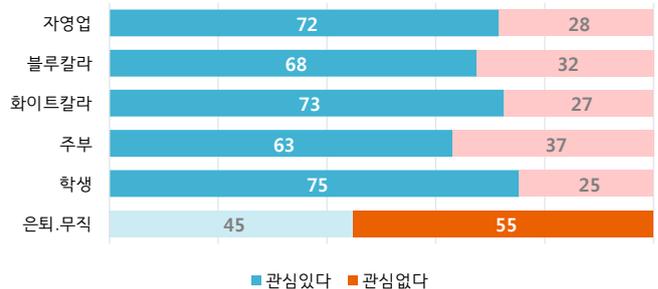
재테크 관심 여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재테크 관심 여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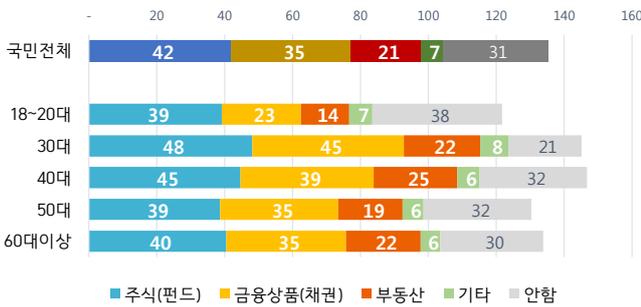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재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
 - ▶ 본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은퇴 이후 생활 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저축과 국민연금인데, 이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임
 - ▶ 각자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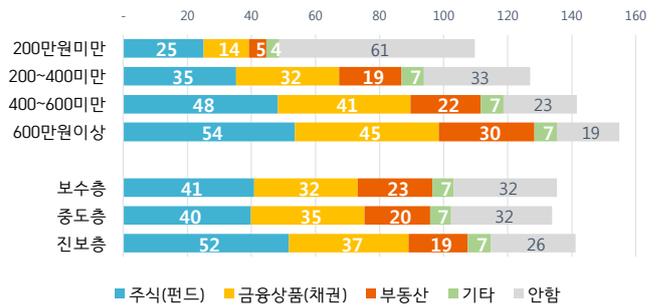
※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, '주식'과 '금융상품'이 주력

- ▶ 국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(투자)를 모두 선택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'하나도 안한다'는 응답이 31%로 나타난 가운데 '주식(펀드 포함)'이 42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금융상품(채권 포함)'이 35%로 조사됨
- ▶ '부동산'도 21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냄
- ▶ '하나도 안한다'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 △TK △자영업자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'주식'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계층은 △3040 세대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△진보층 △PK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- ▶ 한편, '부동산'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계층은 △40대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△자영업 계층 등임
- 40대와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이 재테크 중심 계층으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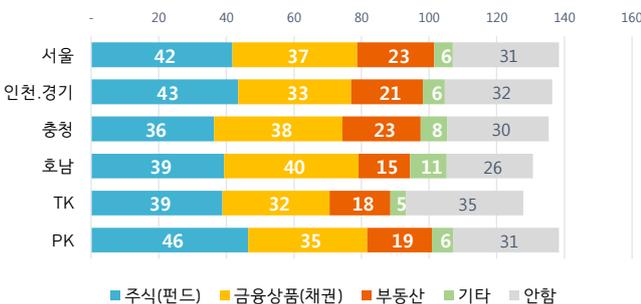
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(복수응답) : 국민전체, 연령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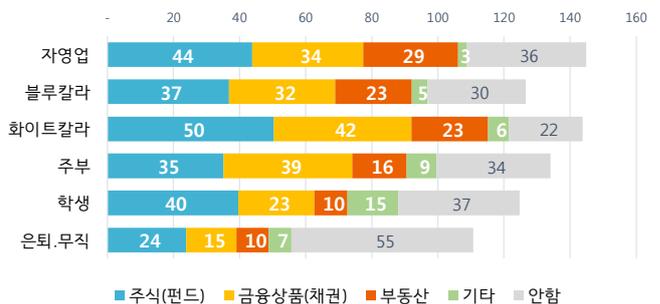
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(복수응답) : 소득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(복수응답)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(복수응답)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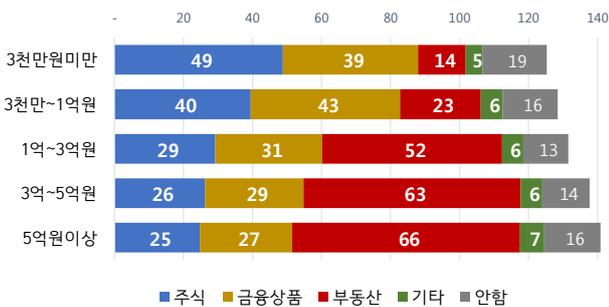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계층은 40대와 고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남
- ☑ 특히 고소득 계층은 주식, 금융상품, 부동산 모두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는데, 이는 결국 현재의 소득이 재테크의 기반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됨
- : 이는 역으로 현재 소득이 낮은 계층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향후에도 빈곤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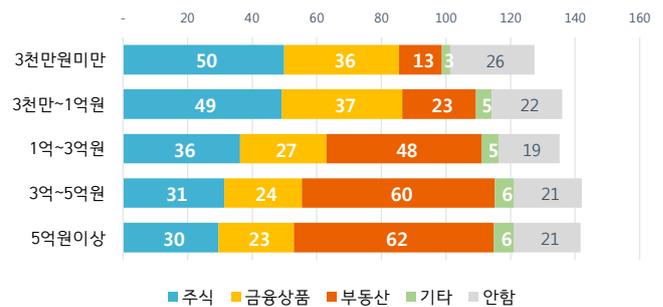
※ 여유자금 보유시 투자대상, 금액 많을수록 '부동산' 선호

- ▶ 우리 국민들은 여유자금이 있고,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'부동산'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비례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
- ▶ “만약 선생님께서 다음 각각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떤 부문에 투자하시겠어요? 해당 금액에 대해 모두 골라주세요.”라고 질문한 결과 여유자금 규모가 작으면 '주식'을 선호하고, 여유자금 규모가 크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함
 - '3천만원 미만' 보유시 '주식'이 49%로 가장 높고, '5억원 이상' 보유시 '부동산'이 66%로 압도적임
- ▶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,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으로 보임
 -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연령대는 30대로, 이들은 5억원 이상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71%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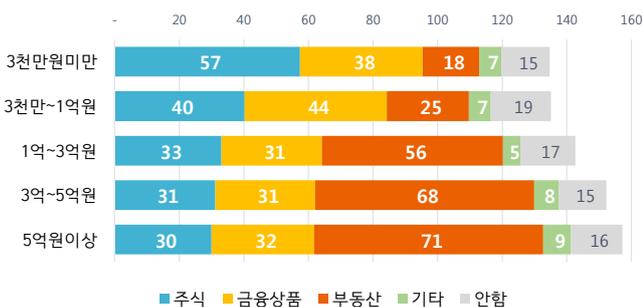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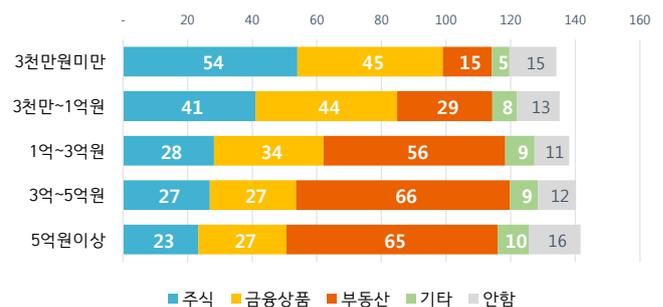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20대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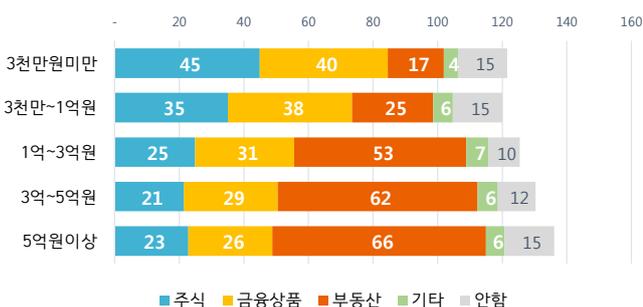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30대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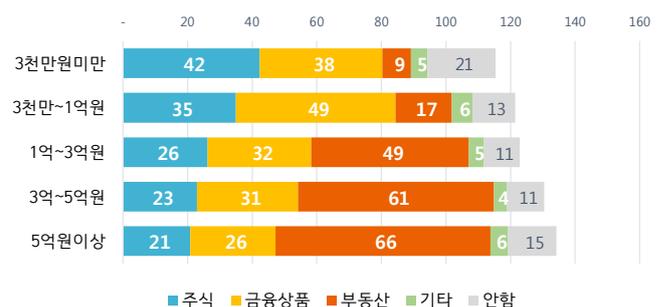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40대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50대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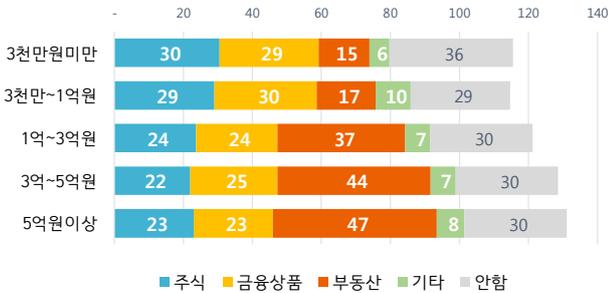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60대이상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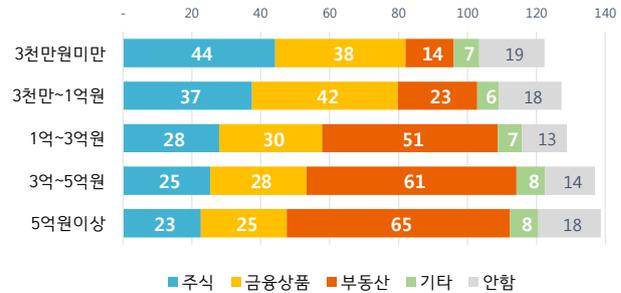


- ▶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봐도 여유자금 규모가 클수록 '부동산' 투자 의향이 확연히 높아짐
-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'아무것도 안하겠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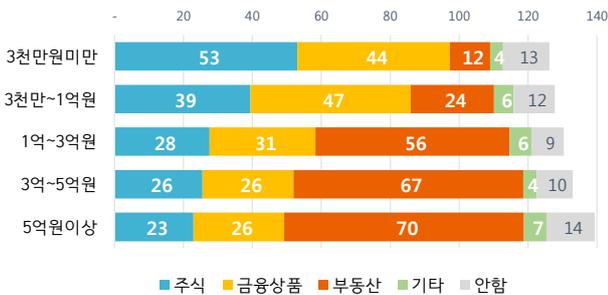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200만원 미만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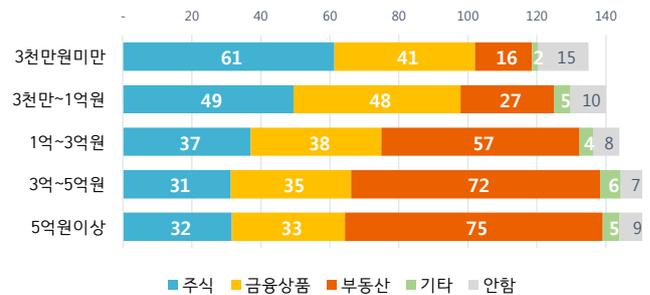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200~400만원 미만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400~600만원 미만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600만원 이상 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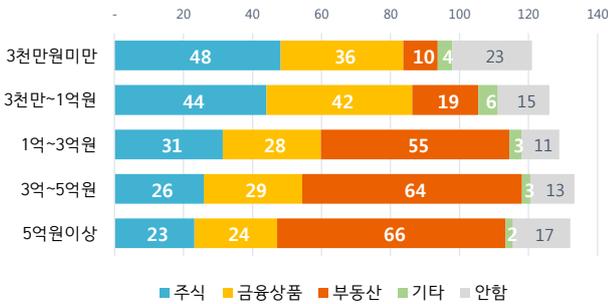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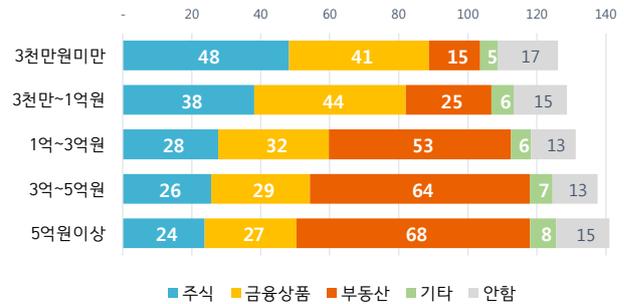
- ☑ 우리나라 국민들은 '부동산'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
 - :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'부동산 불패 신화'가 존재하고,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을 통해 이러한 '부동산 불패 신화'가 재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
 - ☑ 또한 '지금 내가' 부동산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일 뿐 여유자금이 많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함
 - : 은퇴 이후 안정적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소득이 적어 아무런 준비를 못 하는 경우(주로 저소득 계층)
 - : 은퇴 이후를 위해 재테크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은 있지만,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주식투자밖에 할 수 없는 경우(중간 소득계층)
 - : 이 두 경우 모두 여유자금이 확보되면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뚜렷함
 - : 즉, 국민들 다수는 여유자금이 적으면 주식에 투자하고,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음
 - ☑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전 국민적 부동산투자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
 - : 우리 국민은 주택에 대해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33%에 달하고, 서울 강남을 바라볼 때도 주거지가 아닌 투자 적격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음
 - : 또한, 향후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, 이러한 생각은 연령층이나 이념성향을 떠나 동일함
- :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0호 [부동산 관련 국민 의식 심층 분석] 참조

- ▶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여유자금 규모가 클수록 '부동산'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함
- 상대적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이 '부동산' 투자 의향이 높고, 진보층이 낮지만, 전반적인 흐름은 이념성향을 떠나 부동산투자 의지는 한결같은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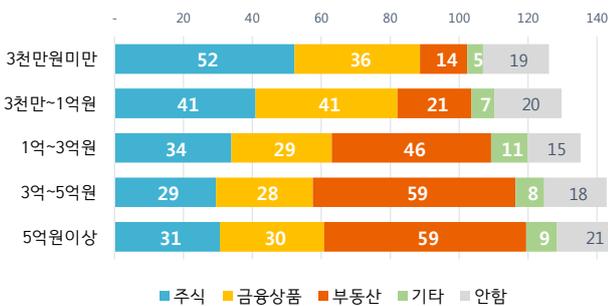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보수층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중도층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여유자금 보유시 규모별 투자대상(복수응답) : 진보층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전통적인 '주거공간' 개념에서 벗어나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으로 바뀌고 있음
- ☑ 이러한 시대변화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과 매달 소득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
 - 구체적으로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'주택구입 및 부채 상환' 53%, '자녀교육비 및 양육비' 45% 등이 꼽히고 있음(서울연구원 조사결과, 2018년)
- ☑ 또한, 취약한 공적연금 등 여전히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노후준비를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 '재테크'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임
 -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비중이 낮고, 지급금액도 낮음
 - 참고로 다른 나라의 도입 시기를 보면 영국은 1908년, 미국 1935년, 일본 1944년, 칠레 1924년, 싱가포르 1955년 등임
- ☑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시대변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노후준비 차원에서의 '부동산 재테크' 심리를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임
 - 국민 다수는 여유자금만 충분하다면 부동산투자에 나설 생각이 확고한데, 이러한 국민 다수를 '부동산 투기 세력'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8월 6일(목) ~ 8월 9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134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1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12호는 “2020년 09월 10일”에 발행됩니다.